

전북대, 지역 기업과 네트워크 강화

기업인 초청 간담회... 맞춤형 인재 양성·기업 안정적 성장 도모 기대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영)는 지역 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인재 양성과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지역 기업 초청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7일부터 시작해 내년 2월까지 한 달에 한 번 주제별 전문가를 초청해 전북 선도가업과 지역 중소기업 대표 등을 대상으로 특강과 네트

워크 구축 활동 등을 진행한다. 세미나의 첫 시작은 7일 오후 7시20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옥동에서 전북 선도가업 및 지역기업 대표나 임원 등이 한 자리에 모여 미리보는 전라북도 2030을 주제로 지역의 현안과 기업 로드맵 등을 함께 진단하고 고민 해보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동영 전북연구원은 지역 기업인을 위한 전라북도 2030 로드맵 및 관련 주요 현안과 사업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고, 간담회 참석 기업인들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다. 전북대 관계자는 "지역 주요 기업에 대한 맞춤형 특강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며 "기업과 대학 간 긴밀한 협력 관계가 지역 기업에 맞는 인재 양성과 취업을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는 기업인들의 특성을 고려해 아침시간을 활용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간단한 조식 제공 등으로 기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정은성 기자



전북사대부고(교장 채선영)는 최근 2020학년도 사부자(師父子)! 온라인 체육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9월 30일 JTBC 뉴스룸에 방영됐다.

‘師父子’ 색다른 추억 만든다

전북사대부고 온라인 체육 한마당 눈길

전북사대부고(교장 채선영)는 최근 '2020학년도 사부자(師父子)! 온라인 체육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새로운 변화 속에서도 변함없는 체육 한마당이라는 슬로건 아래 학생·학부모·교사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온라인 체육 한마당이다. 지난날 21일~28일까지 진행된 온라인 체육 한마당은 거리 두기를 통한 어느 곳에서도 건강(건강)·도전(체력왕, 철봉왕, 출렁기왕), 경쟁(카트라이더), 표현(우리 반 응원, 북면(마스크) 가왕, 댄스 챌린지, 인문학적 체육(스포츠 도서 영상 감상문 스포츠 만화 표현, 스포츠 도전 골든벨) 등 사부자(師父子) 모두가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런 전북사대부고의 도전은 지난 11월 30일 JTBC 뉴스룸에 방영돼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체육행사의 선도적인 모습을 전국적으로 알렸다. 우리 반 응원 분야에서는 학생들이 자기 학습을 응원하는 응원해 연대하는 전체 영상으

로 편입했다. 1인 1종목 참여에서는 학생 개별적으로 연습 후 친구, 가족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제출해 온라인 체육 한마당에 참가했다. 기존 체육 한마당처럼 빈발협동심과 참여도 등을 평가기준으로 개별 및 학급별 단체 시상도 이뤄졌다. 행사를 기획하고 참가한 학생회장 2학년 조영서(17)양은 "이번 온라인 체육 한마당을 계획할 때부터 모두가 소통하고 공감하며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기존 체육 한마당의 의미와 취지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며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에서는 상상치 못한 것들을 경험해 본 좋은 기회이자 색다른 추억이었다"고 말했다. 채선영 교장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우리의 일상이 많이 변화됐지만 온라인 체육 한마당을 시도함으로써 변화된 교육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교육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활용해 교육 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전북유니텍고 전문기술인력양성 '손잡다'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6일 통합멀티미디어컨퍼런스룸에서 전북유니텍고등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 홍순직 총장, 정석훈 대학혁신본부장, 최승훈 산학협력담당장, 조숙진 대외협력센터장, 백일현 산학협력부단장, 김준배 교장, 이은희 교무부장, 박동규 전문교과부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날 전문직업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연속성, 체계성, 위계성을 보장하고, 완성직업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특성화고를 졸업 후 전주비전대학교 해당학과 산업체위탁반 입학할 경우 다양한 혜택과 매학기 50% 장학혜택을 부여하는 등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홍순직 총장은 "양 기관이 협약을 통해 졸업생들이 더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6일 통합멀티미디어컨퍼런스룸에서 전북유니텍고등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이날 협약식에 홍순직 총장, 정석훈 대학혁신본부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대 핵심인재에 총장 인증 수여

경력관리 '큰사람프로젝트' 블랙벨트 13명 취득

"박박하키만 한 취업 준비, 큰사람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진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할 수 있어 좋아요." 전북대 백효진 학생(고분자·나노공학 16학번)은 올 1학기에 전북대학교 핵심인재라는 꿈을 이뤘다. 학생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인 '큰사람 프로젝트'가 올 1학기 총 13명의 핵심인재(블랙벨트 취득)를 배출했다. 이에 전북대는 6일 오후 총장실에서

전북대 핵심인재임을 인증하는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큰사람프로젝트'는 전북대인의 경력관리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입학에서 졸업까지 학년별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학년에 따라 취득해야 할 벨트를 정해 목표를 달성한 학생에게 등록금 감면과 최대 200만원의 장학금을 주고, 핵심인재로 상징하는 '블랙벨트'를 취득하면 취업시 우수인재라는 총장 인증서를 받는다.



전북대 학생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인 '큰사람프로젝트'가 올 1학기 13명의 핵심인재(블랙벨트 취득)를 배출했다.

올 1학기 블랙벨트를 취득한 학생은 백효진 학생을 비롯해 김시현(고분자·나노 15학번), 이의섭(기계시스템

공학 16학번), 김상운(신소재공학부 정보소재 15학번), 조용준(신소재공학부 정보소재 15학번), 정윤준(전기공학 15학번), 정유진(농생물학 16학번), 정여설(생물환경화학 17학번), 김두하(국제학부 15학번), 김도연(경영학 16학번), 박승혜(의류학 16학번), 나지영(통계학 16학번), 폭소영(통계학 16학번) 학생 등 13명이다. 이날 전북대 핵심인재 인증서를 받은 김상운 학생은 "박연했던 취업준비가 큰사람프로젝트 활동을 하면서 뚜렷한 비전을 갖고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준 것 같다"며 "우리대학 핵심인재로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고 싶은 욕심이 생겨 취업준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북e스쿨 '전북e학습터' 로 서비스명·로고 변경

전북교육연구정보원(원장 이재승)은 플랫폼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7일부터 전북e스쿨에서 전북e학습터로 서비스명과 로고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북e스쿨과 전북e학습터의 서비스명 혼용으로 학부모 및 학생의 서비스 사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전국수도교육청과 서비스명 일원화로 안정적인 원격수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전북교육연구정보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실시됨에

따라 도내 초·중학생 전체가 e학습터에 가입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공교육을 선도하는 전북교육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11월 중에는 실시간 원격수업 플랫폼 기능을 추가해 출결 기능을 보완하고, 클라우드 자동증강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과 교사 간 소통 중심의 쌍방향 학습관리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해 학습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성 기자

남원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남원 임실 순창 국회의원 이 용 호	남원시청 시장 이 환 주	남원시의회 의장 양 희 재	농협 남원시지부 지부장 박 노 현	남원 축협 조합장 강 병 무
남원 농협 조합장 박 기 열	남원산림조합 조합장 윤 영 창	남원경찰서 서장 강 태 호	남원 병원 원장 신재훈·박종관·김학경	남원 이엔씨 대표 권 찬 열